

04
2025

재외동포의



이달의 재외동포 _ '재미동포 기부왕' 홍명기

특집 _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정책 돋보기 _ 재외동포청,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공감 부문 최우수상 수상

“동포는 대한민국 자산이자 인구절벽·지방소멸 대책”

‘글로벌 한상경제권’ 주제 동포 정책 학술대회 성황



4월의 재외동포 '재미동포 기부왕' 홍명기

한글을 통한 고려인 정체성 함양

고려인의 이주 역사는 160년이며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이 깊다. 고려인의 명칭은 이주 초창기에 유래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1860년대 조선 시대 가난한 농민들이 흉년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고향을 떠나 인접한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스스로 고려인으로 자칭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일본의 수탈을 피해 연해주로 대거 이주했으며 1920년대 연해주에는 수십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주권을 강탈당한 고려인들은 조국없는 무국적자가 되었으며 많은 탄압을 받았다.

1928년 조명희 시인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려인이 발간한 한글신문 '선봉'에 '짓밟힌 고려'라는 유명한 항일 저항시를 게재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려인이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독립의식이 크게 고양되었으며 연해주는 항일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1937년 소련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은 고려인에게 큰 수난이었다. 스탈린은 당시 소련과 적대관계인 일본과 협력을 우려해 17만 명의 고려인을 연해주에서 중앙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고려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추방됐으며 공식 진출이 금지된 적성(敵性) 민족으로 전락했다. 스탈린은 고려인들에게 한글 사용을 금하고 러시아어 사용을 강요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불구의 의지와 성실함으로 고려인협회를 설립하고 한글, 한복, 전통을 보존했으며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했다. 무엇보다 고려인들은 항일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 강하며 카자흐스탄에서 생애를 마친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였다.

한글은 지난 160년간 고려인들의 정체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려인들은 소련 공산당의 검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조신문'(1908), '선봉'(1923), '레닌기치'(1938) 등 한글 신문을 계속 발간하였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중앙아 국가 등 15개의 국가가 독립하였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레닌기치' 신문을 1991년 '고려일보'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이주 120년 만에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글신문은 문학작품을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했으며 많은 고려인 작가들이 등단할 수 있었다. 1953년 스탈린이 사



송금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전 주탄자니아 대사)

망하자 고려인에 대한 소련 정부의 차별 대우와 검열이 완화됐으며 고려인 작가들의 문학 단편집이 발간돼 고려인 문학이 보다 창의적으로 발전했다.

현재 고려인 3, 4세대가 주류를 차지하며 복합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구소련 해체 이후 출생한 탈냉전의 4세대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소련 공산주의를 경험한 3세대와 가치관이 다르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차이가 있다. 역사적 조국인 한국, 소수 민족으로서 살아본 사회주의 소련,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 남-북한 대립에 따른 이념적 갈등이다.

최근 고려인들은 모국어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으로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고려인이 다문화 사회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앞으로도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선 한국 정부는 고려인 대상으로 모국 방문 연수를 보다 확대하고 한글 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고려인 문학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거주 11만 명의 고려인들이 한국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06



18



20

02 창을 열며 한글을 통한 고려인 정체성 함양
송금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전 주탄자니아 대사)

04 이달의 재외동포 '재미동포 기부왕' 홍명기

06 특집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4천 990만 달러 규모 대미 수출계약... "성황리 폐막"
한국 지자체 · 미국 지방정부 참여 'G2G 포럼' 개최
재외동포청, '한상경제권 구축' 논의 첫 걸음
K-스타트업, 글로벌 무대에 서다
한글학교 교사 · 학생 · 학부모 연수회 미국서 첫 개최
"중소기업 수출길 열었다" ... 기업전시회에 현지 바이어 대거 몰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16 정책 돋보기 재외동포청, 한국정책학회 정책공감 부문 최우수상 수상
"동포는 대한민국 자산이자 인구절벽 · 지방소멸 대책"
'글로벌 한상경제권' 주제 동포 정책 학술대회 성황

20 뉴스 속으로 안산에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건립... 동포청 "더 보듬겠다" 외

22 OKA 뉴스 동포청-충북도, 지역 기업 · 청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체결 외

25 기고문 해외입양동포 전담 서비스 창구 개소에 즈음하여
김성미(LOUISE LINDBERG)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26 재외동포청 공지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04
2025

재외동포의 창

4월의 재외동포 '재미동포 기부왕' 홍명기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 · 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동포 기부왕’ 홍명기

한상네트워크 발전 건인

안창호 동상 건립 · 차세대 장학사업 앞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홍명기의 날’ 제정



4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재미동포 기부왕 홍명기 전 이사장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025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미동포 기부왕으로 불리는 홍명기(1934~2021) 전 M&L Hong 재단(구 밝은 미래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

성공한 재미동포 기업인으로 ‘세계 한상(韓商)의 대부’로도 불리는 홍 전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을 비롯해 대한민국민회관 복원 등 미주 독립운동 역사 보존을 지원하고 한인 차세대 교육 및 장학사업을 후원했다.

홍 전 이사장은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54년에 미국에 건너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화학과를 졸업한 뒤 페인트 회사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2년간 윌리타커(Whittaker)라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수석 연구원과 연구소 소장까지 오르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타인종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종 차별에 한계를 느끼고 1986년 51살에 산업·건축용 특수페인트 회사인 ‘듀라코트’(Dura Coat Products)를 창업했다. 창업 초기 어려움도 많았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노력으로 30년 만에 ‘듀라코트’를 연 매출 3억 달러(약 4천400억원) 규모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아메리칸드림을 일군 대표적인 거상이 됐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창업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줬다. 또한, 인종차별이라는 벽을 느껴야 했던 경험은 그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 한인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나자 현장을 방문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인들의 억울함을 대변할 지도자가 없음을 목격한 그는 사업적 성공을 한인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사재 1천500만 달러 넘게 한인사회에 환원

2001년에는 1천만달러(146억원)를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한인 권익 향상을 위한 후원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민족 혁신을 강조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에 감명 받아, 차세대 민족정신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상 건립에 15만 달러를 내놓기도 했다.

그의 기부 이후 이어진 동포사회의 기부와 우리 정부의 지원을 합쳐 약 60만달러가 모아졌다. 그 돈으로 2001년 리버사이드시 시청 앞 광장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동상 맞은편에 안창호 기념 동상이 건립됐다. 이 동상은 한인 학생들이 단체로 건학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 전 이사장은 2002년에는 LA 타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10번과 110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를 '도산 안창호 IC'로 명명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주 의회 결의를 통해 지역 내 IC 4곳에 그가 후원한 '도산 안창호 IC' 표지판이 설치돼 한인사회 위상 제고에도 기여했다.

또한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총회장을 오랫동안 지내며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미주 한인 사회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에는 미국 독립운동의 총본산인 '대한민국민화관'이 노후화로 철거 위기에 놓이자 복원사업회장을 맡아 기금 모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화관이 역사박물관이자 교육 장소로 활용되도록 지원했다. 이는 미주 한인 사회의 역사적 뿌리를 보존하고 그 의미를 후대에 전하려는 그의 깊은 헌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홍 전 이사장은 차세대 한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폐교 위기에 처했던 남가주한국학원의 이사장을 맡아 본인 기부금 20만달러 포함해 300만달러의 기금을 모금하고 학교 운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 미주 지역 유일의 민족 교육 기관이자 정규 초등 교육 기관이었던 남가주한국학원을 지켜낸 그의 노력은 미래 세대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투자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자신이 설립한 페인트 회사를 매각한 후 그는 한미박물관 건립 기금 256만 달러, UCLA와 LA 동부 라시에라 대학에 각 200만 달러와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영웅 김영옥 미 육군 대령의 이름을 딴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에도 37만 달러를 쾌척했다.

그의 기부 활동은 고국에서도 이어졌다. 2015년 한상들이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글로벌한상드림'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국내 청년의 장학사업과 해외 취업을 위해 10만달러, 화학 분야 후학 양성을 위해 삼육대학에 100만달러를 지원했다. 그의



홍명기 전 이사장을 비롯한 동포사회 기부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에 세워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차세대 인재 양성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탈북자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장학 사업에도 앞장섰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창립 멤버로 큰 족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이전 세계한상대회) 창립 멤버로 2013년 제12차 대회 대회장과 한상 리딩 CEO 포럼 의장을 맡아 세계한상네트워크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2021년 초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건립 용지 대금으로 5억원을 기부하는 등 2021년 8월 8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모국과 동포사회에 대한 기부를 이어왔다. 그의 타계 후에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된 것은 그의 삶이 한국 사회와 재외동포 사회에 남긴 깊은 발자취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준다. 그의 헌신과 나눔의 정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2002년 국민훈장 동백장,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2년 그의 생일인 6월 20일을 '홍명기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상덕 청장은 "홍명기 선생의 기부와 후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미주 한인사회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독립운동 정신과 그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세계 한상의 롤모델이었던 그의 공적을 기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개최된 4월에 맞춰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4천990만달러 규모 대미 수출계약...“성황리 폐막”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상경제권 구축’의 공감대 형성

미국 애틀랜타에서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개최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0일 폐회식과 환송오찬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매일경제·MBN, 중소기업중앙회,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나흘간 총 6억 6천만달러(한화 약 9천9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K-푸드, K-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4천990만 달러(한화 약 740억원 규모)의 현장 계약이 체결돼 한류 상품에 대한 미국 현지의 인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한류 인기로 힘입어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분야에 특화해 기업전시회를 마련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다. 대회에 참여한 뷰티 기업인 M사와 A사는 미주 한인 최대 쇼핑몰인 홈쇼핑월드와 수백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등 관세장벽이 높아진 시점에서 대기업에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진출도 본격화됐다는 점도 이번 대회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 위한 G2G 프로그램 호평

행사 이틀날에는 국내 2개 기업(D사 및 H사)은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건축사와 각 2천5백만달러, 2천만달러 규모의 현지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86건, 1억5천만 달러(한화 약 2천250억원 규모)에 달하는 우리기업과 동포·현지 기업과의 MOU 체결도 이번 대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18일 열린 스타트업 피칭대회에



2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개스사우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폐막식에서 환송사 하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참가한 우리 스타트업 S사는 미국 동포 투자기업과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의향서를 체결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연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23년 미국 애너하임 대회 이후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개최된 행사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 경제인, 국내 기업인 등 약 4천여명이 대회에 참가했으며, 대회의 핵심인 기업전시관에는 2만여명의 일반 참가객이 방문했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한상경제권으로의 도약'을 표방하고 한·미 양국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켈리 레플러 미 중소기업청장이 개회식에 참석해 2025년을 '한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등 주최로 1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개스사우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에서 주요 참가자들이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상경제권 원년'으로 선포하는 세리머니를 진행,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상경제권 구상은 동포기업인과 국내 기업인을 '한상경제권'으로 묶어, 생산·소비·투자·인력이동·공급망 구축이 촉진되도록 하여, 한상 경제권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18일 '한상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열린 오찬 포럼에서는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이목을 끌었다. 김 사장은 "전쟁 시기 때 동맹으로 출발한 한미 관계가 이제는 믿음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경제·전략적 연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미국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한미 관계의 강력함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는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상호 동맹의 깊이와 회복력 그리고 가능성을 직접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욱이 조지아주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최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150여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국내 최대 대미 진출 거점으로 알려진 곳이라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스타트업 투자유치도 이어져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확대 등 통상 압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한상 네트워크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연결하는 '한상경제권'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대회가 열린 미국 조지아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투자 거점 중 하나로, 한·미 양국 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다. 이

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미국 주정부 간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도 함께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17일 개최된 G2G 포럼에는 우리측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 전라북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국 측에서는 매릴랜드주, 아칸소주, 앨라배마주 등 상무부 장관들이 참석해 양국 지역별 투자 유치 전략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국 지방정부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20일 개최된 폐회식에서는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하고, 스타트업 경연대회 시상 등으로 진행됐으며, 환송 오찬을 끝으로 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공동주최 및 주관기관들의 열정적인 준비와 헌신 덕분에 이번 대회를 한류 상품 중심으로 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상경제권'으로 도약하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상들을 아우르는 글로벌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 양국 인사 간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대회 기간 내내 행사장에서 일정을 꼼꼼히 챙겼으며, 한상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동포청 직원들도 밤잠을 아껴 가며 대회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프로그램 가운데 한미 정부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G2G 포럼' 참석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앞줄 가운데 테이블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드 카스티야 앨라배마주 상무부 차관, 스티븐 라이스 메릴랜드주 상무부 차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홍문표 aT 사장, 휴 맥도널드 아칸소주 상무부 장관,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한국 지자체 · 미국 지방정부 참여 'G2G 포럼' 개최

한 · 미 간 경제 협력 강화 논의...미국 주정부들 한국 기업 유치 경쟁 벌여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한국 지자체와 미국의 지방정부 간 상호투자 및 교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회 첫날인 17일 개최된 G2G 포럼에는 한국측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장, 중소기업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 윤여봉 전북 통상경제진흥원장 등 한국의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메릴랜드주, 아칸소주, 앨라배마주 상무부 장관을 포함해 뉴욕,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를 비롯한 총 10여 개의 정부 ·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이날 포럼에 참석해 지역별 투자 유치 전략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G2G 포럼은 한 · 미 정부간 주요 인사들이 한미 투자교역 증진을 주제로 발표하는 이번 대회의 핵심프로그램이다.

먼저 충북도와 전북도는 지역별 주요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기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각각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과 K-Food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미국 10여개 주 고위관료 참석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애틀랜타에 모이신 많은 세계인이 충북을 방문해주시고 충북에 투자해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 자리가 한국 · 미국 양국 간 경험과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공동 기술 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한 미국 주정부 주요 인사들은 한국과의 각별한 인

연을 소개하며, 우주 항공, 2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시너지 창출을 위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에드 카스티야 앨라배마주 상무부 차관은 “20여 년 전 앨라배마주에 현대자동차 제조공장이 세워진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다”며 “현재 4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현대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고용자만 3만8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앨라배마의 장점은 한인 커뮤니티가 매우 훌륭하다는 점”이라며 “지나해에는 한국 기업 15곳이 앨라배마 카운티 4곳에 합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앨라배마에 있는 기업이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대회 기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앨라배마주에 현대자동차 공장 세워진것 큰 축복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넨 스티븐 라이스 메릴랜드주 상무부 차관은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2023년 메릴랜드와 한국의 교역액은 17억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메릴랜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양자와 인공지능(AI)에 중점을 둔 생명과학 기술, 사이버보안, 항공우주 등 세 가지는 한국에서도 매우 큰 산업이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메릴랜드주지사는 한미 양국 간 우정이 더 돈독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유대 관계를 촉진하고 공동 번영을 가져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휴 맥도널드 아칸소주 상무부 장관은 아칸소주 리틀록스에서

6·25전쟁 영웅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태어났고, 미국 태권도협회 본부가 아칸소주에 있다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플로리다주 공식 무역·투자 촉진 기관인 셀렉트플로리다의 페르난다 피게이레두 부회장은 “한국은 플로리다의 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7번째라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에 이어 오는 10월 한국으로의 무역·사업 개발을 위한 지도부 후속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이지만 플로리다의 고등교육기관, 스포츠 및 기타 여러 이해관계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데리고 갈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칸소주, 6·25전쟁 영웅 맥아더 장군 고향

이번 포럼은 애틀랜타 대회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한편, 한·미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G2G 포럼에 이어 18일에는 한국 기업과 미 주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B2G 포럼 및 양측간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1:1 미팅의 자리도 마련됐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한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최대 투자처인 조지아주에서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를 계기로 양국 간 소통 채널이 다변화되었고, 이를 통해 한미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각 지역의 투자 유치 사례를 공유하고, 중점 육성 산업 분야 내 상호 투자 및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G2G 포럼'에 앞서 이상덕 (왼쪽서 7번째)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포청, '한상경제권 구축' 논의 첫 걸음

리딩CEO포럼 통해 한상경제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전략 제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린 애틀랜타에서 '한상경제권 구축'을 심도있게 논의한 리딩CEO 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17일(현지시간) 개막식에서 이상덕(앞줄 왼쪽 서 6번째) 재외동포청장과 김기문(앞줄 왼쪽서 7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린 미국 애틀랜타 개스사우스컨벤션 센터에서 18일 '한상 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리딩CEO포럼이 개최됐다.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모임인 '리딩CEO포럼'은 2002년 제1차 세계한상대회 (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계기로 발족한 대회 자문기구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조언과 차세대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번 포럼에는 리딩 CEO 회원은 물론, 대회 운영위원, YBLN (Young Business Leaders Network),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등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한상 네트워크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YBLN은 2002년 '차세대 경제 리더 포럼'을 시작으로 결성된 한민족 차세대 경제인들의 모임으로 35개국 19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외동포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은 2024년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발족한 재외동포경제인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자문단이다.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은 "한미 양국의 특별한 동맹과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글로벌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파트너로 함께 서 있다"고 설명하며, 참석자들에게 "공동의 비전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글로벌 경제 변화 대응을 위한 한상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확대 등 통상 압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상 네트워크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연결하는 '한상경제권' 구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기업전시회’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개스사우스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이상덕(오른쪽서 5번째)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간다면 ‘한상 경제권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세금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조성, 이스라엘 베트남 등 해외 유사 사례 벤치마킹 및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변화 등을 제안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예측불허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전 세계 한상기업들이 각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역량 결집의 플랫폼이 될 ‘한상 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 시작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한상과 국내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민족 경제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야제 참석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선배 한상들은 이 같은 차세대 리더 사례 발굴을 위한 조연을 아낌없이 나눴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상경제권의 중요성이다. 한상경제권은 한국과 해외 동포 기업인이 뭉쳐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것을 뜻한다. 공동 경제권 내에서 교역은 물론 투자와 공급망 구축까지 자유롭게 실현하며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다.

한오동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아웃도어 용품 전문업체 콜핑의 협력은 가장 모범적인 한상경제권 진출 사례다. 애틀랜타에서 뷰티 매장을 운영하던 한 회장이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한상대회에서 콜핑과 미국 총판 계약을 맺으면서 공식 비즈니스 매칭 1호 사례가 됐다. 콜핑은 2023년 9월 미국에서 첫 번째 매장을 애틀랜타 델루스에 열었고 이곳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 회장은 “K문화가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콜핑을 ‘K의류 (K-Cloth)’로 브랜딩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관세로 인해 기업인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는 때일수록 전 세계 한상들이 서로 돕고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1세대 한상들은 앞으로 젊은 한상들의 힘까지 합쳐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상구 세계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선배 한상들이 현장에서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 연결을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차세대 리더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근 한미우호협회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배 한상들에게 ‘중심 잡기’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한상의 길은 자동차 운전과 같다”면서 “눈앞의 장애물에만 집중하면 세계 무대에서 길을 잃기 쉬우니 거시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1세대 한상들의 조언에 화답하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축하사에서 “한상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신 분들”이라면서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탬 것을 약속했다. 

K-스타트업, 글로벌 무대에 서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글로벌 유니콘 가능성 증명



2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폐막식에서 이상덕(왼쪽서 6번째) 재외동포청장이 'K-스타트업 경연 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현지시각 18일 미국 애틀랜타 개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Gas South Convention Center) 내 매그놀리아(Magnolia Hall)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스타트업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대회 핵심 프로그램으로 추진돼 온 스타트업 경연 대회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올해에는 약 200여개의 스타트업이 애틀랜타 대회 참여를 위한 예선에 참가했으며, 최종 본선에 진출한 AI, 배터리, 바이오, 로보틱스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20개 팀이 온·오프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참가팀은 각 10분간 각자의 혁신 기술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등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겨냥한 솔루션들이 다수 소개되면서, 현장 참석자들과 심사위원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사 결과 오프라인 발표 그룹 1등은 AI 기반의 재활, 교정 솔루션을 소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EverEx)가, 온라인 발표 그룹 1등은 AI·IoT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모핑아이

(Morphing I)가 AI와 다중 센서를 통해 송수관의 결함을 감지하는 스마트검사 로봇 'Morphing Bot'를 소개해 수상했다.

현지 벤처캐피탈(VC)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술 혁신성 ▲시장성 ▲시장진입전략 ▲글로벌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우수 기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오프라인 발표 그룹 1·2등에게는 재외동포청장상, 온라인 발표 그룹 1·2등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온·오프라인 3등에게는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스타트업 경연대회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강조했으며, "젊고 혁신적인 우리 스타트업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한상이 가진 잠재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약 4,000여 명의 한상과 경제인이 참가해 G2G포럼, 기업전시회, 스타트업 경연대회, 1:1 비즈니스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한글학교 교사·학생·학부모 연수회 미국서 첫 개최

이상덕 청장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한글학교 교육의 시작이 되길”



18~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에서 이상덕(앞줄 왼쪽서 5번째)재외동포청장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회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처음 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8~2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동남부협의회(회장 노시현) 협력으로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동남부지역 한글학교 교사 110여명을 비롯해 학생 60명과 학부모 40명 등 210여 명이 참가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98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동남부협의회 등 14개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1천여개의 한글학교를 관장한다.

재외동포청이 그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현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범수업, 강연 등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수는 교사 대상 프로그램과 학부모를 위한 특강, 초·

중·고등학생 대상 시범수업 등으로 꾸며졌다. 교사 연수는 18일 애틀랜타에 있는 아발론 호텔 컨퍼런스센터에서 마련됐다. 교사들은 '좋은 수업 바로보기', '어휘에서 문단까지 단숨에 표현하기' 등의 강의를 듣고, '전략 중심 교수·학습 설계 및 활용'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에도 참여했다.

이 연수회에 직접 참석해 축하한 이상덕 청장은 "이번 연수가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재외동포청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한글학교 공동체 연수를 처음 시도한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현지 한글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사들에게는 실제 활용 가능한 교수법을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학부모 대상 특강을 통해 자녀의 정체성 교육 방향을 공유하는 등 한글학교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길 열었다” 기업전시회현지 바이어 대거 몰려

K-뷰티 · 바이오 · 식품 · 헬스 등 400개 기업 비즈니스 미팅에 집중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개스사우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을 돕는 ‘기업전시회’가 17일 열렸다.

이번 기업전시회에는 국내에서 400여 중소기업이 참여해 부스를 개설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K-뷰티, K-푸드, K-바이오, K-헬스케어와 IT 등이다.

개막식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덕 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창환 전남 경제부지사, 정영호 휴스턴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상덕 청장은 “‘한상경제권’ 구축을 통한 동포 경제 네트워크가 모국과 거주국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대회가 한미관계 강화의 장이 되어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 주목받는 K-푸드 · 뷰티 · 바이오를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주최자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이경철 회장은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을 가진 한상 및 현지 바이어 500여명이 대거 전시회장을 찾았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파트너십 체결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전시회에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지자체 부스들도 마련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도 부스를 개설해 회원 기업 홍보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 개막 후 중소기업 제품 전시 부스에서 시식을 하는 주요 인사들. 왼쪽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 배우 정준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재외동포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나선 인천광역시에서는 24개 기업이 참가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농협중앙회 소속 기업들도 부스를 꾸렸다.

오 장관과 이 청장 등 주요 인사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식품 부스에서는 시식에도 참여했다. 홍보대사로 행사에 참여한 배우 정준호 씨는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상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최 측은 기업 전시장 맨 안쪽에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1대1 비즈니스 미팅’ 공간도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는 19일까지 이어졌다. 행사를 총괄 지휘한 노상일 조직위원장은 “대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이 대부분 실질적인 구매 결정 능력을 갖춘 이들로 대회 전부터 문의가 쏟아지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며 “더욱이 한류로 주류사회 소비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대회에서 10억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인천서 개최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로 인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64개국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 경제 네트워크 행사다.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촉진 등이 목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내년 4월 또는 10월 중 3일 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재외동포청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개최 도시로서 환영 오·만찬, 참가자 수송·물류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특화형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행사 및 사후 후속 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은 “재외동포 인천 방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포스터.

문의 해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 확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해 행사 운영, 사후 성과 관리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도 대회 성공 개최 견인한 주인공”...이상덕 청장 격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1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전 세계 한민족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는 총 200여 명으로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등 대회 전반에 걸쳐 안내와 통역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상덕 청장은 “국내에서도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응원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이 국내 중소기업과 재외동포 경제인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대회의 성공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격려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 앞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발대식을 갖고 있다.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은 “미국 전역에 있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온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대식에는 노상일 대회 조직위원장과 강신범 공동운영본부장도 함께했다. 

동포청, 한국정책학회 정책공감 부문 최우수상 수상

국민 체감형 민원서비스 개선 정책 도입 및 효과적 시행 공로 인정 받아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국내 최고 권위 있는 학회로부터 정책 분야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뒀다.

동포청은 25일 서울 중구 중림동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정책공감 부문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정책학회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민원 접근성 향상 ▲온라인 기반 상담시스템 확대 ▲수요자 맞춤형 대응체계 도입 등 국민 체감형 민원 서비스 개선 정책을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 공로를 인정하면서 “정책의 구성성과 실효성이 높았다”고 평가해 수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그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재외 국민들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해 전자금융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요구돼 번거로웠다.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는 전 세계 최초로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최적이자, 최고의 혁신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입·출국하는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간편하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통합민원실 분소’를 설치했다. 또한 국내외 입양 동포들의 친부모 등 가족찾기를 비롯해 고종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전담 창구를 지난 3월 광화문 서비스지원센터에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 국민들이 실제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25일 서울 중구 중림동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이상덕(오른쪽) 재외동포청장이 박형준 정책학회장으로 부터 상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원스톱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올해를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고, 총 5천만 달러(약 74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실적을 달성한 2025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의 성과에서 보듯이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동포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실사구시적 동포 정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동포는 대한민국 자산이자 인구절벽·지방소멸 대책”

이상덕 청장, 동포청의 새로운 아젠다로 ‘국내 동포 지원 문제’ 강조

이상덕 청장 학술대회 개최식 인사말 요지

재외동포청은 한민족 정체성 함양 차원에서 재외동포 단체 지원이나 해외 한글교사들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 연수와 차세대 동포 모국 방문 초청 연수 등의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포청의 새로운 아젠다가 국내 동포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약 1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이 약 87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려인들, 특히, CIS 지역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인들이 약 10만 명이 넘게 한국에 정착해 있고, 앞으로도 약 10만 명이 더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새로운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재외동포 사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거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위 한상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약 40만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경제인들 연간 매출만 해도 1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이 커진 해외 한상들과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동포청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17~20일 재외동포청 주최로 미국 애틀랜타에서 제 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해 5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 그리고 7억 달러 가까운 현지 상담을 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국내에 정착한 동포, 특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한민국 산업 발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자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과 경기 안산, 경북 포항, 그리고 광주광역시, 충북 제천 등 전국 각지에 고려인 마을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 90%가 고려인 등이



25일 서울 중구 중림동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 대상 시상식' 및 학술대회 개최식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마이너리티인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2~3세 고려인들을 잘 육성해서 우수한 사람들은 영주권과 시민권도 줘서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육성해야 하겠다는 것이 동포청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장학재단과 각 기업 대표들을 찾아뵙고, CIS 지역이나 입양 동포, 라이파이한, 코피노 등 동남아 지역에 한국 혈통을 가진 우리 2~3세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키우는 게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상경제권’ 주제 동포 정책 학술대회 성황

국내 체류 동포, K-공동체 수립에 중요한 역할 인식 전환 필요



최연구 건국대 교수가 'K-공동체 수립 및 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5일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와 공동으로 '2025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 정책의 학술적 기반 강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한 학술대회에는 국내 정책학 전문가와 실무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K-공동체 수립 및 지원 정책'과 '글로벌 한상경제권 구축과 재외동포 인재 활용 방안'을 주제로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 최연구 건국대 교수는 'K-공동체 수립 및 지원정책'을 주제로 다양성 기반의 정체성과 열린 네트워크에 기반한 'Koreanity' (한국성) 중심의 공동체 형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박사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대상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거주, 교육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기성 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과 정소운 한국행정연구원 박

사,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K-공동체 수립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토론자들은 국내 체류 동포가 K-공동체 수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내국인의 재외동포 수용성과 정부의 국내 체류 동포 정책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기성 국장은 "내국인들 사이에서 동포들에 대해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차별 의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재외동포들은 일반 내국인보다 차별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이 단순한 체류 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른 재외동포청의 동포들에 대한 특화된 지원 정책의 필요성 논의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동포들이 외국인과의 경쟁에서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은 외국인과의 차별화된 동포 특화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

토론자들이 K-공동체 수립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벌어졌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에 대해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기성 국장은 “재외동포청은 국내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와 내국인들의 동포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동포청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재외동포 단체들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내국인 수용성 증진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1월에는 전국동포총연합회와 함께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의미를 담아 생명 나눔을 위한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또 2월에는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 밥퍼 행사를 개최했다. 다음 주에는 중국인 동포들과 함께하는 밥퍼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개선 방안도 토의됐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적 역량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령별, 목적별로 더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기성 국장은 “내년도에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통계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다문화 가정과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수가 각각 100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인다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 통계 실태조사처럼 동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1천억 원이며, 동포청 보다 규모가 작은 과학창의재단의 경우 예산이 2천억 원임을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의 예산 1천억 원을 700만 동포에게 나누면 1인당 1만4천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설득력을 얻었다.

동포청은 초기 단계에서 독자적인 정책 에이전트보다는 기존

정책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연구 교수는 동포청의 주요 역할로서 열린 코리아니티(Koreanity·한국성)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코리아니티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동포청 설립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이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코리아니티는 고정된 개념이 아닌 열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이 동포청의 주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 문제 해결과 새로운 동포 정체성 확립을 통한 K-공동체의 미래 전망도 토의가 뜨거웠다. 영토와 혈연 중심을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정체성 방향만 정립되면 예산 확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철승 조선대 교수는 ‘한상경제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어울림 철학의 공동체론을 중심으로 한 한상(韓商)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재외경제인과 모국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경섭 인하대 교수는 만주로 귀화한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인재 활용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직종별·맞춤형 인재 유입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단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이장섭 전남대 교수는 “한상경제권 구축은 한국의 경제적 영토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고, 인재풀 확대와 연계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에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건립…동포청 “더 보듬겠다”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서 항일투쟁에 앞장선 고려인들의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국내 처음으로 건립됐다.

4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들어선 기념비는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너머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고려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알리자고 제안하며 추진됐다.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공헌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자며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 건립 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253명의 기부자와 안산 희망재단 및 너머의 지원금이 더해져 건립하게 됐다. 이날 제막식은 안산시, 너머, 대한고려인협회가 주최하고, 추진위원회와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기념비 제막을 계기로 “국내 거주 고려인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다짐했다.

변철환 동포청 차장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기념비는 흥범도 장



4일 열린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워진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제막식.

군, 최재형 선생과 같은 저명한 독립운동가들뿐만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려인의 숭고한 뜻을 알리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자랑스러운 독립 정신과 민족적 연대의 역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서 수교 1주년 기념 첫 한류 문화 축제 성황리에 열려

9~12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이 주최한 ‘2025년 아바나 한류 문화 축제’가 열렸다.

이날 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라종일 전 주일·주영 대사는 “수교 후 한국 측이 쿠바에서 주최하여 열린 첫 순수 문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현지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정부 및 민간에서 합심해 마련됐다. 주 쿠바 한국대사관과 주한 쿠바대사관도 후원기관으로 도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화계에선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강제규 영화감독 등이 직접 나서 양국의 문화 교류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학술 교류도 이어졌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문학 세계가 자주 비견되는 비르힐리오 피네라의 작품을 두고 양국 학자들이 다양한 담론을 쏟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독립운동가 임천



지난 12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한류문화 축제 행사 현장

택(1903~1985) 선생의 딸이면서 쿠바 정치인 헤로니모 임 씨의 여동생인 마르타 림 김도 직접 본인의 저서인 ‘쿠바의 한국인들’에 대해 강연했다. 각 토론회와 강연 후엔 현지 청중의 질문세례도 이어졌다.

‘올해의 이민자 영웅상’에 웬디 리 그램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정

미주 한인 이민자로서 미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재미 한인사회의 품격을 높인 한인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올해의 이민자 영웅상’에 웬디 리 그램 전 연방 선물거래위원회장이 최초 선정됐다.

비영리단체인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는 2025년 이민자 영웅상과 평생업적상 수상자로 이같이 선정했다. 하와이 출신의 한인 이민자 3세인 리 그램 박사는 웰슬리

대학에서 학사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텍사스 A&M대학에서 8년 이상 경제학 강의를 맡았다.

리 그램 박사는 1985~1988년 대통령 직속 예산실과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차관보를 역임했다. 당시 한국계로서는 연방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올랐다. 이후 1988~1993년 상품선



웬디 리 그램(왼쪽)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과 마이클 시글 장군.

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조지메이슨대학에서 규제정책연구소 소장직도 맡았다.

그녀는 필 그램 전 상원의원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과 다섯 손주를 두었다. 필 그램 전 의원은 연방상원 은행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후보로도 나선 바 있다.

한미우호협회는 또 현재 미 육군의 유일한 현역 한국계 장성으로 제57대 병참감

겸 병참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시글 장군을 2025년 평생업적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에게는 2만5천달러, 평생업적상 수상자에게는 5천달러의 부상이 각각 주어지며, 수상자들은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멕시코 한인 자부심’ 한글학교…노후 건물 보수 위해 모금활동

멕시코 교민사회에서 자랑처럼 여기는 36년 역사의 멕시코 한글학교가 건물 노후화 문제로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 최근 교육 공간 개선 및 시설 확충을 위한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멕시코시티 한복판에 자리한 멕시코 한글학교 건물은 최근 건물 변형과 손상에 따른 구조 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받았다.

멕시코 한글학교는 과거 한글 교육의 불모지 같던 멕시코에서 동포들의 건립 염원과 십시일반 성금 답지로 마련한 장소다. 한인 사업가를 필두로 여러 교민과 한국 기업들의 성금과 옛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청)의 지원으로 2010년 5월 현재의 건물을 매입했다. 2012년에



멕시코시티 한복판에 자리한 한글학교

는 2차 모금을 통해 강당을 포함한 별관을 신축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보탬으로 안정적인 학교 기능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보수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오영란 멕시코 한글학교 교장은 “준공한 지 100년은 넘은 건물인 데다 멕시코 역사 건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손을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멕시코 한글학교에서는 유치부(3개 반)·국어반(9개 반)·한국어반(5개 반) 등

총 17개 반 학생 220명과 교사 20명이 매주 토요일 4~5시간 이상 머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된 멕시코에는 약 1만 5천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동포청-충북도, 지역 기업 · 청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체결

이상덕 청장,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 충북 기업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미국 애크랜트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기간 중인 1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충북 소재 기업 ·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 세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동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는 동포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 제공 등 지역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매년 30여명의 국내 청년들을 전 세계 동포기업의 인턴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전북과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북 지역 학생 10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상덕(왼쪽) 재외동포청장이 17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사회와 협력방안 논의

이기성 정책국장, 신 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 면담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사회의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포사회의 의견청취에 나섰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신 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을 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에서 만나,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사회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신 회장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사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동포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마티 소재 케이 파크(K-PARK) 건립 사업, 고려인 동포 모국방문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재외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재외동포청과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신 안드레이 회장은 신라인그룹 대표이자 알마티 시의원으로서, 2022년 9월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에 취임했다. 1989년 창립한 이 단체는 우리문화의 보존과 계승, 한국어교육, 한국과의 교



재외동포청 이기성(오른쪽) 정책국장이 7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신 안드레이 고려민족중앙회장과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 협력 확대,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과의 화합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동포청, aT와 MOU...“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K-푸드 수출 확대”

이상덕 청장 “식품영토 확장...농식품 업체 북미시장 진출 적극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K-푸드 북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한상경제 권으로의 도약-한상과 함께 중소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두 기관은 지난 2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리 농식품 업체 해외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고, 이번에 MOU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대한민국의 식품영토 확장을 위해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



이상덕(왼쪽) 동포청장은 8일 인천 송도 동포청에서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공사와 우리 식품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 K-푸드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에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OK Biz)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상덕 청장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하는 115개 우리 농수산물식품 기업들이 북미 시장 바이어와 만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문표 사장은 “우리 농수산물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과 해외 진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재외동포청-시흥시, 국내 동포 지원 협력 확대키로

변철환 차장, 임병택 시장과 정책 논의...“변화 체감하도록 적극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경기도 시흥시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동포청에 따르면 변철환 차장은 2일 시흥시청에서 임병택 시장을 만나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의 국가적 과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사회 일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시흥시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스쿨 플랫폼 구축 ▲정왕본동 주민자치회 내 글로벌 분과 운영 ▲중국동포 중심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지역 내 상호 문화적 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외동포청 변철환(오른쪽) 차장이 2일 시흥시청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을 만나 국내 동포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변 차장은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 관련 업무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이제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만큼 동포청의 동포 관련 전문성과 지자체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동포들의 정착지원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시흥시는 외국인과 중국동포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가 전체 인구 60만 명의 12%인 7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 정책 관심 대상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재외동포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전했다.



동포청, ‘강진 피해’ 미얀마 한인사회에 생필품·구호품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최근 발생한 미얀마 강진과 관련, 피해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과 구호품 등 미화 3만 달러(약 4천4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동포청은 지난해 초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는 태풍으로 대규모 단전 사태가 발생한 쿠바 동포사회에 발전기를 지원하는 등 동포들의 위난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미얀마 강진 발생 후 미얀마한인회장·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재외동포 피해 상황과 구호품 수요를 파악한 동포청은 이번 물품 지원 이후에도 현지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덕 청장은 “한인회와 현지 우리 공관의 협조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미얀마 만달레이 및 네피도 지



지진 복구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조성현 만달레이 한인회장과 직원들의 모습.

역 지진 피해 동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포청, ‘최재형 장학금’ 받은 국내 체류 고려인 학생들 격려

아시아발전재단(ADF), 고교생 및 대학생 등 20명에 1년간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최재형(1860~1920년) 선생을 기리는 장학금을 받은 국내 체류 고려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은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아시아발전재단(ADF·이사장 김준일) 주최 ‘2025 ADF-최재형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축하한 뒤 수여자들을 응원했다.

ADF은 최재형 선생의 폐치카 정신을 바탕으로 고려인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거주 고려인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연간 200만원과 10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대학생 12명, 고교생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남철 ADF 상임이사는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은 고려인과 한국사회의 미래인만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 장학금이 성장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12일 서울 용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ADF-최재형 장학금’ 수여식

이기성 국장은 장학생에 선발된 고려인 학생들을 축하하면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스토리를 차곡차곡 만들어가며, 한국사회에 보다 더 빠르게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포청이 아시아발전재단 등과 함께 그 길을 응원하고 동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입양동포 전담 서비스 창구 개소에 즈음하여

해 외입양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재외동포청의 해외입양동포 전담 서비스창구 개소 소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는 어린 나이에 스웨덴으로 입양되어, 새로운 언어,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했다. 입양이라는 경험은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기에, 기대와 동시에 많은 혼란이 동반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모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저와 같이 많은 해외입양동포들은 모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지만 모국에서의 행정 절차,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은 입양인의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이같은 시점에 재외동포청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2층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 해외입양동포들을 위한 전담 서비스 창구를 마련했다. 전담 창구에는 영어가 능통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어 구사가 어려워 민원 접수에 불편함을 겪은 입양 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 창구 개소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확장을 넘어, 해외입양동포의 존재를 존중하고, 입양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이 전담 창구는 국내외 입양 동포들의 친부모 등 가족 찾기를 비롯해 국적 회복, 재외동포비자, 모국 방문, 정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입양동포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전담 창구로서 모국과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전 세계에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한인 해외입양동포가 존재하며, 이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한인으로서의 뿌리를 간직한 채 살고 있다. 입양동포들은 모국을 이해하고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언어, 행정, 제도 등 많은 장벽이 존재했다.



김성미(LOUISE LINDBERG)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이번 조치가 그 장벽을 조금씩 허물고, 입양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는 나라'가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입양동포는 지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입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민간외교사절이다. 다문화 감수성과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입양동포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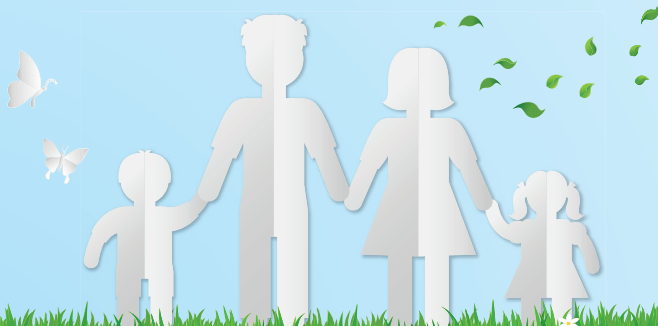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외동포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다.

4월 29일 개최된 입양동포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해외입양동포의 모국정착에 좋은 정책적 대안들이 나와 입양국과 모국을 오가며, 양국의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입양동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해외입양동포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재외동포청의 역할은 더욱 빛날 것이다.

해외입양동포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일원이다. 뿌리를 찾아 모국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이 여정에, 더 많은 따뜻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8일: 재외동포청-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업무협약식
- 15일~21일: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애틀랜타)
- 25일: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 대상 시상식 및 2025 춘계학술대회

2025년 4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3일: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회장(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취임식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면담
- 7일: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식
- 8일: 재외동포청-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업무협약식
- 9일: 성경룡 상지대학교 총장 오찬 및 제1회 상지코리아포럼
참석
-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면담
- 15~21일: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애틀랜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 기업전
시회 개막식, 재외동포청장 주최 환영만찬, 제23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폐회식 등)
-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25일: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 대상 시상식 및 2025 춘계학
술대회

재외동포청 공지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오는 5월 6일까지...포상 종류는 국민훈장, 국민포장, 표창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5일 열리는 2025년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에 대해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공모한다. 오는 5월 6일까지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상 종류는 국민훈장, 국민포장, 표창이다. 포상 추천 대상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추천 대상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개인 및 단체)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모범적 구성원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한 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 권익 신장에 기여한 자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상생발전에 공이 큰 자.

훈격별 최소 공적 기간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이다.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훈장은 7년 이



사진은 지난해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하다.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사항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메일(okapolicy@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먼저 만나면 더 좋을거야

노후준비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비스영역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제공서비스

노후준비 진단 · 상담 · 종합재무설계 ·
교육 · 관계기관 연계

제공방법

국민연금 40개 거점지사 전문상담사 ·
강사가 무료로 제공



방문, 전화,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하세요!

<http://csa.nps.or.kr>

오늘의 대한민국이 빛나기까지 **재외동포**도 함께했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는
재일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에도
재외동포는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